

광주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마음구호 프로그램



광주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센터장 임성희)는 지난 9·10일 국립나주숲체원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 경험자 외 기타 재난 직·간접경험자를 대상으로 '제1차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사진>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동안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숲

체험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동가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 구호 힐링 프로그램'은 재난 경험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회복을 돕기 위해 매년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시체육회, 광주체육인 스포츠안전 인문학교육



광주시체육회(회장 전갑수)가 12일 '2025 광주체육인 스포츠안전 인문학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강의에 나선 송창영 광주대학교 대학원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현장의 다양한 재난사례와 현대사회의 위험 구조를 바탕으로 스포츠 현장에서의 안전 개념을 인문학적으로 풀어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광주 AI 사관학교 교장 선임



인공지능(AI) 분야의 국내 대표 전문가로 꼽히는 하정우(사진) 네이버클라우드 AI Innovation 센터장이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이하 AI 사관학교) 제6기 교육과정의 교장을 맡는다.

AI 사관학교는 AI 실무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만 18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광주 AI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하정우 센터장의 참여로 AI 사관학교 커리큘럼의 전문성과 산업 현장 연계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공지능사관학교 교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AI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연구원, 기후위기 대응·재난관리 전략 세미나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13일 오후 나주 동신대에서 광주연구원, 한국방재학회와 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재난관리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세미나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제 발표에 이어 실질적인 재난안전 정

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이어졌다. 전남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의 재난관리 전략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안전의 혁신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관광공사, 비짓광주 SNS 기자단 발대식



광주관광공사(사장 김진강)는 최근 '2025 비짓광주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 올해 선발된 기자단은 총 12명으로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다채로운 관광자원과 생생한 문화행사 현장을 SNS를 통해 생동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도 일

부 포함되어 있어, 글로벌 홍보 강화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기자단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활동하며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연간 축제 현장을 찾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광주 방문의 해를 알리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대·광주시사회서비스원

지역발전·인재양성 협약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가 최근 광주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대삼)과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사회 공헌사업 제공 등 상호 협력 ▲학생 현장연수 및 현장실습 협조 ▲지역 및 교육 발전의 공동 노력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블럭(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오동아네 육아일기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친절한 전주씨(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5 KBS 뉴스	30 여왕의 집(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중계방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	10 시사기획 창(재)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수목드라마 24시 헬스클럽(재)		00 시크릿 코드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오늘N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안방 자두야6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05 터닝메카드 갯(재) 25 키즈 펫 도감(재) 55 2시 뉴스외전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열린채널			00 뉴스브리핑
[3]	10 어린이동물터비 40 비하 빠르 불의 습격(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쏫! 내 친구는 빅파이브(재)	55 기분 좋은 날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영상앨범 산(재)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00 Why? 15 다이노 파워즈 4 30 풀집 영화가 좋다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다시 만난 오월	50 여왕의 집	05 친절한 전주씨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대운을 잡아라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수목드라마 24시 헬스클럽	00 슈팅스타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30 라디오스타	40 사계의 봄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스튜디오 K		
[12]	00 KBS 중계식 <서울시오페라단 구노 파우스트>	40 KBS 재난방송센터(재)	15 MBC 뉴스 25 35 웰컴 투 스포츠	00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재)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07:15 무지개 강아지 달린의 모험 07:30 엄마 까투리 07:45 레인보우 버블젠 08:00 당동맹 당동맹 08:50 고고다이스 해양구조대 09:05 메탈카드봇S 경찰의 귀환 09:20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붕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숨은 남미 찾기-콜롬비아 재발견> 12:00 EBS 뉴스 12 12:10 PD로그(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클래스 e 15:10 고향민국 15:40 마사와 곰 15:55 불룩스 16:10 당동맹 당동맹 17:00 페파 피그 17:10 엄마 까투리(재) 17:25 레인보우 버블젠(재) 17:40 도레미 프렌즈 쇼츠	17:50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붕(재) 18:10 EBS 뉴스 18:30 건축탐구 - 집 19:20 고향민국 19:50 귀하신 뎀 20:40 세계테마기행 <중국 아화(野話) 강남 -정수 비책, 신선도> 21:35 한국기행 <곳간 열리는 날 3부 지금, 금오도> 21:55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22:45 박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3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4:00 클래스 e(재) 24:20 지식채널e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4일 (음 4월 17일 癸未) ☎ 010-9790-8237	
36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니 미련을 버리고 과감한 방향 전환을 해야만 한다. 48년생 처음과 거의 대동소이한 흐름을 보일 것이나, 60년생 치밀하게 원인을 분석하자. 72년생 오랜 회포를 풀어 되는 기쁨이 보인다. 84년생 일상에 파문을 던지는 이가 있으리라. 96년생 마지막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54	42년생 자신이 될 만한 것이 보이니 놓치지 말라. 54년생 방향을 잘 잡는다면 술술 풀리게 될 것이다. 66년생 일상에서 완전히 탈피 할 수 있는 파격이 아쉽다. 78년생 표현이 적절해야 속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나, 90년생 바람직한 조건으로 변경될 소지가 있다. 02년생 미진하다면 부자 용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4, 55	
37년생 주변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이의 관심이 모아지는 형태이다. 49년생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제히 나서는 양태이다. 61년생 참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민감해지겠다. 73년생 우열보다는 기호를 따르는 입장이 되리라. 85년생 악연 후가 예상되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을 잘하자. 97년생 자금을 받을 일이 생기겠다. 행운의 숫자 : 46, 60	43년생 다시 한번 고려한 후에 행하는 것이 옳다. 55년생 다양성에 기초한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 67년생 격정할 일이 아니니 마음 편히 있어도 된다. 79년생 하는 일이 행하는 대로 잘 풀려 나가게 된다. 91년생 인식을 함께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이다. 03년생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행운의 숫자 : 20, 64	
38년생 치우친 주관은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으나, 50년생 상징성을 이해해야 속뜻을 파악할 수 있다. 62년생 애매하다거나 번거롭더라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것이 낫다. 74년생 또 다른 차원의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86년생 기가 막힐 일이 생긴다. 98년생 합세해야 물리칠 수 있으나, 행운의 숫자 : 44, 97	44년생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지 말라. 56년생 신숙하게 처리하면 상당한 재물을 얻을 수도 있으나, 68년생 당황하면 바로 코앞에 두고도 못 찾을 것이다. 80년생 지속 시간이 길수록 효과가 커질 것이나, 92년생 약간만 활용해도 판이한 결과를 낳기에 충분하리라. 04년생 생방의 의사가 합치되는 흐름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3, 95	
39년생 후회하더라도 지장이 없으니 착실하게 임하라. 51년생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떠 있는 형상이로다. 63년생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되리라. 75년생 시작으로 쉽게 현혹 될 수도 있으나, 87년생 평상시 대로만 해 나간다면 결과가 무난할 것이다. 99년생 단순하게 판단한다면 오류를 부를 뿐이다. 행운의 숫자 : 41, 69	45년생 식상함을 거두고 새로움을 추구하라. 57년생 하는 일의 열매를 도모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몸을 배는 일이 되기도 한다. 69년생 숨은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 결정적인 시기이다. 81년생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지치기를 잘 해야겠다. 93년생 가닥이 잡히는 시점이다. 05년생 새로운 변화를 꾀해보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01, 92	
40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라. 52년생 마음의 문을 연 만큼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반응하리라. 64년생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서 조심스러운 행동을 해야겠다. 76년생 기회가 사람을 버리는 것보다 사람이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 88년생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00년생 결정적인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25, 58	46년생 후회한다면 더 좋은 길이 보인다. 58년생 만남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70년생 꽤나 속상할 일이 생기겠지만 마음을 비우고 속 편하게 생각하라. 82년생 생강철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길한 시기이다. 94년생 고생은 되겠지만 보람이 있을 것이다. 06년생 여백의 아름다움이 훨씬 빛나리라. 행운의 숫자 : 34, 87	
41년생 기대했던 바는 물 건너가고 기쁨을 주는 이가 따로 있다. 53년생 전환하기에는 너무 늦은 길목에 이르렀다. 65년생 믿고 추진해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었다. 77년생 가장 가까운 이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89년생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 01년생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치워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7, 77	47년생 자신감 있게 표출할 필요가 있다. 59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칠 것이다. 71년생 조짐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리라. 83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여 왔던 바를 반갑게 맞이하리라. 95년생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07년생 기다리던 소식 없이어서 애가 태웠다. 행운의 숫자 : 31, 76	